

고린도후서 6장

성경말씀을 따라 우리의 여행을 계속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을 여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쓴 편지의 원문에는 1장, 2장 또는 1절, 2절 등으로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편지글이었고, 장이나 절은 우리가 한줄 씩 참조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후에 첨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과 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귀들을 찾아보기에 용이하게 했습니다. 장과 절들은 단지 성경말씀 속에 있는 글귀들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 서신들을 받아쓰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계속 연결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문화로는 종종 한 장의 끝에 이르면, 다음 장은 다음 주에 읽을 것이라든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연결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말씀은 서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끝 부분에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드리라고 그들에게 강권합니다. 또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라고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대신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불화 가운데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우지 말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은 은혜의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 바울은 곧 이어 6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엄청난 값을 치루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고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헛되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죄 사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으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과 함께 연결됩니다. 바울은 디도서(2장11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과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2 가라사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사야서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바울은 이사야서에서 이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구원을 받아드리십시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흥미롭고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언젠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말하기를, 어느 날 나의 삶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의 의도가 어느 날 그렇게 할 것이라면, 왜 미루니까? 왜 모험을 합니까? 바울이 벨릭스에게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로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는 떨며 말하기를, 이제 그만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을 미루니까?

그것은 마치 당신이 편두통을 앓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새로운 약이 나와서 즉시 좋아질 수 있는데, 당신은 이 약을 약장에 넣어두고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밤 하루만 더 고통당하자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기막힌 구원을 미룬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관해 아마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미루는 버릇’일 것입니다. 네, 나는 언젠가는 나의 삶을 바르게 바꿀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 언젠가 입니까? 왜 오늘은 아닙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지금이 받아들일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시간을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그의 헌신을 작정할 시간을 정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그 시간을 미룬다면, 당신이 또 다른 기회를 가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왜 바울이 지금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때를 지나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마지막 때에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지나쳐 버렸습니다. 우리의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구원에 반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3 우리가 이 직책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까지 않게 하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려 했고, 아무에게도 거리까지 않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만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바울은 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함으로 그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기를 먹는 일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었지만, 약한 형제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의 자유함이 연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비난 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공공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믿음과 지식을 갖고 있지만, 만일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너희가 거기 있는 것을 보면 양심이 담력을 얻어 그도 역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 것이라. 그렇지만 그것이 그의 양심을 괴롭혀서 그에게 거침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너희 지식으로 그 악한 자가 멸망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행동이나 네가 할 수 있는 어떤 자유함으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까지 않게 하고 이 직책이 훼방 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불행히도 사람들에게 거리끼게 했던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수년간 목사로서, 사람들은 목사를 존경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내가 좀 더 높은 강대상에 서있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여러분들이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 당신을 높이 올려놓는다면 참 어쩔 수가 없겠지만, 거기에 서 있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그곳에서 끌어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역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주님께 대한 당신의 헌신과 당신을 존경하는 것 등으로 인해 당신이 목사이기에 어떤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는 교만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목사의 진정한 개념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입니다. 목사라는 단어는 노예 또는 종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길,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물며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인 우리는 얼마나 더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하고 또 섬겨야 마땅하겠습니까!

4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군으로 자천하여, 또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처하였다고 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일군으로서 그가 경험했던 이러한 것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에 공부한 구절에서 바울이 사역에 관해 말하면서,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9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였고, 당혹스런 일을 당했으며, 핍박을 받았고, 내던져짐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직면하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12장 10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악할 그 때에 곧 강함이라고 합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진정한 사도의 표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군으로서 그가 경험했던 것들의 얼마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의 사역자들에게도 일어난다면, 만일 우리도 바울이 견디어낸 것들을 인내해야 했다면, 아직까지 사역을 계속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남아 있을

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많은 인내를 해야 합니다. 이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5 매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것들은 가운데(in's) 있는 것들이고, 이제는 이것으로(by's)입니다) **6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8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또는 속이는 자로 알려졌으나) 참되고 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in) 있는 것과, 이러한 것으로(by)와, 그 다음에는 이러한 것 같으나(as)를 보십시오. 그는 많은 인내 가운데, 환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매 맞음 가운데, 갇힘 가운데, 요란한 것 가운데, 수고로움 가운데,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깨끗함으로, 지식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함으로, 성령의 감화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영광과 욕됨으로, 악평과 호평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같으나(as)'를 말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여 말한 비난들은 그가 속이는 자 같으나,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나는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했습니다.

나는 가끔 나의 아내와 뉴포트 해안지역을 운전할 때 그곳의 모든 아름다운 저택들을 보면서 아내에게, 뉴포트 해안지역에서 가장 부자가 된다면 좋지 않겠느냐? 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쌍하게도 엄청난 부채를 안고 삽니다. 행복의 거짓 약속만을 주는 그러한 것들로 만족과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 중에 얼마나 그러한 가장 아름다운 저택과 가장 큰 요트를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혼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신경 쇠약 등으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들을 먹어야합니다. 그런 것에서 자유함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약 같은 것들도 필요치 않습니다. 나에게서는 예수님이 계시며,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행복과 만족함을 얻기 위해 그러한 것들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 나의 것입니다. 아무 것도 가진 것 같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그의 마음을 엽니다. **11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꾸밈없이 솔직히 말하였노라. 그것이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솔직히 있는 그대로를 말하였다. 나는 교활한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고, 너희를 속이려고 애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 서신을 읽어 내려가면 바울이 저들에게 거짓 없이 솔직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속임이 없으며 이중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다른 말로, 우리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12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영어에 친숙치 않은 고어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의 애정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에게 너희의 애정을 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안에서 억제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나의 마음을 너희에게 활짝 열었도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핍은 내 편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이 흐르지 못하도록 담은 것이라. 사랑이 흐르지 않는 것은 내 쪽이 아니라.

13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니, 공정하게 너희의 마음도 활짝 열라고 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너희를 향해 활짝 열은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도 나를 향해 보답하듯 활짝 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엄숙한 경고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은 특별한 경우이기에 이 성경 구절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어겨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했던 날을 후회를 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은 기본 원리입니다! 나는 그것이 결혼에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차이점들을 덮어주기에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아마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신은 전혀 다른 두 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한 후에 내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결혼들이 결국은 이혼이라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과 결혼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야는 사업 동업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백만장자로 만들어 줄 제품을 갖고 있다는 것은 훌륭한 계획입니다. 사람들은 사업으로 동업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두 가치관을 갖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정직하기를 원하므로 모든 장부를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정부로부터 돈을 조금 숨긴다면 당신의 양심은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다른 동업자는 걸리지 않는 한 어떻게든 교묘히 속여 용케 빠져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똑똑하다면 안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주님을 모르는 동업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타협하기를 원하고, 만일 내가 그것을 한다면 나는 속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 마음이 찢겨지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생산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정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업자가 고객을 속이려고 할뿐만 아니라 동업자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큰 문제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고, 또 당신으로부터 숨기고 있다가는 한꺼번에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따라야 할 좋은 원칙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 멍에를 같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짐의 분량을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그것은 함께 섞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름과 물 같습니다. 그것은 함께 혼합되지 못하며, 계속해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합니까? 그 답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일치 또는 동의) 이것 역시 섞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빛이거나 어두움이 함께 섞이지 않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니까?

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사단) 어찌 조화(일치)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들은 결코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겼다가는 사라지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악령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교리의 바람이 불고는 지나갑니다.

아마도 나의 사역 가운데 이러한 교리의 바람이 불고 지나간 적이 한 4번쯤 있었습니다. 한번 지나간 후 한참 있다가는 다시 또 불어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귀 제거 사역이라고 부르면서, 크리스천들을 이런 귀신의 힘과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력한 귀신 등 여러 다른 종류의 귀신들을 알아내기도 합니다. 만일 교회에서 당신이 편하게 나른하게 앉아 있으면, 당신은 무기력한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 귀신이 당신을 졸리게 하여 당신이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그 무기력한 귀신을 쫓아낸다고 당신에게 안수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일 당신이 트림을 하면, 그것은 당신이 폭음폭식의 귀신이 들렸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합니다. 그들은 항상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방금 말한 것과는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느냐? 만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어떤 악령이 너희 안에 성령과 함께 같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두움과 빛,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사귀며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폭음폭식의 문제를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문제이지 사단의 세력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주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 **17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빛이 어두움과 함께 사귀지 말고,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분리된 삶, 명예를 같이 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당신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일해야 할지모릅니다. 그것은 동업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에 그것을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일할 때, 회사가 당신에게 거짓 장부나 어떤 참되지 않은 것을 하도록 할 때면 당신의 양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라. 이것이 구별된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밤 당신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선물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어느 누구에게도 거리까지 않게 하고 오직 당신의 진실된 사신으로서

당신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약한 양심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서
당신을 또한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당면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당신께서 거기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주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게 하신 이
아름다운 관계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